



의회 정치와 공청회

노 윤 래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영국의 국위가 5대양 6대주에 걸쳐 선양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빅토리아 여왕(1819~1901) 시절이다. 여왕은 장수를 누리기도 했지만 1897년에는 재위 6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을 갖기도 했으니 영국 역사상 가장 위업을 남긴 국왕이 된 셈이다.

영국의 의회 정치

1952년 조지(George) 6세가 사망하고 현재의 여왕인 엘리자베스(Eligabeth) 2세가 등극했을 때 영국민들은 여왕의 대관식을 바라보면서 과거 빅토리아 시절의 국력 부활을 기대하고 열광적으로 환영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 밑에 약졸이 없다고 빅토리아 여왕이 훌륭한 치적을 남길 수 있었던 배후에는 오늘날 영국의 민주주의 꽃을 만개시킨 두 명의 정치 지도자가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의회 정치를 확립시켰다는 점을 잊을 수 없다. 글래드스톤(William E. Gladstone, 1809~1898)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 1804~1881)이다. 이 두 정치 지도자들은 20여년에 걸친 인간적 투쟁을 통해 오늘의 영국 민주주의를 있게 한 의회 정치 발전의 기수였다.

자유당(현 노동당의 전신)의 글래드스톤은

1868~1874년과 1880~1885년에 걸친 두 번의 수상직을 맡으면서 인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는 데 그의 정열을 쏟았다. 그는 매처럼 생긴 고상한 외모를 보였는데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의 빛나는 눈과 신비할만큼 생기고 청중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음성엔 대중을 압도하는 데 충분하였으며, 그의 행동은 장중하면서도 진취적이었고 특히 청렴 결백함이 강해 마치 송고하고 종교적인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의 정치관은 전통적인 영국의 제도를 파괴하는 일이라도 인민이 원하는 제도라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프가니스탄의 촌락 생활이나 영국의 도시 생활이나 사람의 생활은 똑같이 신성하게 보는 것이 하느님이라고 말함으로써 인민에 의한 정치 철학과 인본주의적 윤리·도덕관을 갖고 있었다.

보수당의 디즈레일리는 1874~1880년에 수상직을 성실히 수행했는데, 재능이 뛰어나고 기지가 많아 정치 논쟁의 외중에서도 상대방의 정연한 논리를 익살과 해학으로 재치있게 받아넘기는 등 재주가 비상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실하여 영국인 특유의 강한 보수성을 보여 주었다. 글래드스톤이 인민이 원한다면 전통적으로 내려온 제도(관행)일지라도 파괴하고 새로운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하여, 디즈레일리는 국가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민의 정부를 세워야 하며 그 같은 맥락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다소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 정치가였다.

영국의 의사당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의원석의 배열 상태를 보고 흥미를 느끼게 된다. 우리 국회 의사당은 의원석이 모두 의장석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일본 등 많은 민주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영국은 의사당의 중앙을 향해 여·야 당 의원들이 서로 마주 바라볼 수 있도록 의석이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각 당의 거물들이 앞좌석을 차지하고 초선 의원들이 뒷줄에 앉게 된다. 민주주의의 참된 정치 제도란 의회 제도에 있으며, 의회 정치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영국인들의 오래된 정치 철학인 것이다.

런던 시내를 흐르는 템즈(Thames) 강변에 자리잡은 영국 의사당 내부를 보고 있으면 120여년전 디즈레일리와 글래드스톤이 지척지간을 두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노정객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듯 하고, 이들이 남긴 발자취를 처칠(Winston S. Churchill, 1874~1965)의 사자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회 정치를 발전시켜 참다운 민주주의를 확립시키기 위해 우리도 영국처럼 국회 의사당의 좌석 배치를 여·야가 서로 마주보게 배열하여 토론과 대화를 통해 정책 대결을 하게 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과연 효과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까? 고탐과 욕설이 난무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치고 받는 추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서슴치 않는 우리 의원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영국식 의사당의 의석 배치는 절대 금물일 것 같다.

공청회를 법적 제도로

최근 우리 사회에는 갖가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10여년 전에 일기 시작한 민주화 운동과 열린 정치, 공개 행정의 바람을 타고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의를 수렴한다는 생각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장소에 가보면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자주 보인다. 고탐과 야유로 찬반 토론을 방해하는 일은 보통이고 심



한 경우에는 공청회가 성사될 수 없도록 온갖 방해를 서슴치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청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청회라 부를 수 없고 하나의 요식 행위인 듯 하다. 영국 의사당 내의 토론 문화를 본받아 우리의 공청회를 법에 의한 제도적 장치로 전환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채택하면 좋을 것 같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하나의 예로 든다면, 발전 사업자를 원고, 반대측(환경 단체·주민 등)을 피고로 하고, 법정에서는 양측의 변호인단(원자력 전문가·교수·언론인·시민 단체 등)으로 하여금 찬반 토론을 하게 하고 참관인은 일체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전문적 기술성을 요하므로 법관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공청이 이룩될 수 있고, 따라서 원자력 PA(국민적 합의)도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비단 원자력만이 아니고 댐 공사·공항 신축·항만 공사 등 국가적 사업인 경우에 이같이 법적 장치가 마련된 공청회를 통해 민의를 수렴한다면 반대측의 저항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